



人力の 富強國 「스위스」 徒弟制度로 技能工育成

짐나제(GIMNASE)



金 秀 坤

韓國開發研究院 人力政策室長

高原에 파묻힌 스위스

「스위스」라고 한다면 얼른 알프스를 연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時計를 연상케한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世界第一로 꼽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그러한 世界第一을 넘겨한 「스위스」의 人力이 과연 世界第一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自然的 條件을 보았을 때 우리보다 낫은 것이란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알프스의 高原地帶에 파묻혀 있으면서 北으로는 독일이 西南으로는 佛蘭西가 東쪽으로는 「오스트리아」가 그리고 南으로는 「伊太利」가 있어서 國土가 바다에 接한 部分은 하나도 없고보니 海外 貿易을 할래도 지금은 飛行機로 可能하나 옛날에는 반드시 第三國을 通해서 만이 可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年 한 해만도 120億弗 가까운 輸出實績을 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이다.

自然資源이래야 보잘것 없다. 國土의 1/4이 岩石이나 湖水가 아니면 永河로 덮혀 있어서 개간할 수 없는 땅이고 알프스 草原이나 森林地帶가 나머지 大部分을 차지하고 경작이나 住居가 可能한 地域이란 겨우 國土의 30%에 지나지 못한다. 말하자면 그것도 계곡사이의 低地帶이지 우리가 말하는 平野는 아니다. 가장 낮다는 地帶가 海拔 193m이고 경작지란 것이 모두 30°上

의 기울기를 가진 山비탈들이고 山中턱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집들이 農家들이다.

600萬 人口에 60萬 常備軍

우리나라로 말하면 慶尙南北道를 합한 程度의 크기에 獨, 佛, 伊太利 세나라 말을 使用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直接 民主政治制度를 계속하면서 聯邦制度를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가 그 같이도 높은 所得水準(6,013\$)을 享有하고 있는 것은 分明히 그 나라가 良質의 人力을 保有했다는 點以外에 說明이 不可能하다. 한 例로써 全人口 6百萬名인 이 나라에 常備軍 60萬이 있다고 한다. 男子는 18歲만 되면 兵役의 義務를 지고 일단 軍에 17週間 복무하고 그 後에도 50歲가 될때까지 豫備役訓練을 계속함으로써 有事時에는 60萬 大軍을 즉각 動員할 수 있겠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 놀란것은 各自의 任務에 따라 機關단층이나 小銃과 탄환까지도 配給받아 自己집에 裝備를 하고있다 한다. 그래서 外敵이 侵入했을 때에는 집에서 자기의 武器만 들고 나

오면 되겠음 臨戰態勢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스위스」로 하여금 영세중립국을 표방하고 強大國들에서도 獨立을 지켜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같은 힘의 배경없이 獨立을 유지한다는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잘알아야겠다. 그렇게 武器를各自가 所持하면서도 오발사고 같은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先進國들에 대해서도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國民의 높은 教育水準 때문이라고 答한다. 文盲이 몇퍼센트나 되느냐고 反問하자 對答이 霧이라고 한다. 「霧에 가깝다는 말이겠조. 늙은사람 가운데는 몇%나 됩니까?」하고 물었더니 글을 모르는 사람은 「100年前에 다 죽었습니다」고 答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미 200年前에 世界最初로 義務教育을 實施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같은 義務教育의 效果는 國防이나 安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現代産業社會의 구축에 그 基盤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國際技能 올림픽 大會에서 작년에 2等を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더니 그나라 사람의 대답이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는 一等을 했지요라고…… 一等이 「스위스」였다는 사실을 그전에 몰랐던 筆者로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집나제(GIMNASE)

「스위스」의 教育 및 職業訓練制度는 과연 어떤 것인지? 義務教育의 歷史가 오랜 것은 이미 말한바와 같지만 初等學校 4年 高等學校 5年에 해당하는 總9年이 義務教育으로 되어있다. 初等學校 4年間의 學業成就와 學生의 摘性에 의해서 優秀한 學生은 「집나제」(Gimnase)라는 大學入試를 準備하는 學校에 보내고 그 다음 水準의 學生은 高等學校(High School)에 進學케 하고 나머지 學生은 初等學校에 머물면서 계속 5年을 공부해서 總9年의 義務教育을 마친후 社會로 나가게 된다.

「집나제」에서는 8年半을 공부하고 卒業狀을 받은 後 大學이나 專門學校에 進學케 되는데 大學進學을 위한 準備工夫인 만큼 理論的인 面에

重點을 두고 實技面은 강조하지 않는다. 「집나제」를 다닌 후 기술자(Engineer)가 되기 위해서 工業專門學校를 갈려고 한다면 一年 以上の 實務經驗을 얻은 후에야야 資格을 부여받게 되므로 高等學校를 거쳐서 기술자가 되기보다 좀더 오랜 시간이 必要하게 된다.

高等學校 5年間의 義務教育은 大學入試準備를 위한 것이 아니고 尙차 技能工이 될 수 있는 素養을 갖추기 위한 基本知識의 習得에 重點을 두고 있다. 그래서 高等學校를 卒業한 學生은 다음의 세가지 길로 돌리게 된다.

(1) 商業學校가 그 첫째인데 「콤머셜스쿨」(Commercial School)이라고는 하지만 商業뿐만 아니라 상당히 廣範한 職業教育을 하는 말하자면 實業學校이다. 修業年限은 種類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年 내지 3年이고 그것을 卒業한 후 就業케 된다.

(2) 職業訓練을 받는 것이 그 다음 열린 길인데 그렇다 해서 高等學校卒業生이 곧바로 職業訓練所로 가는것이 아니다 먼저 어느 한 職場에 就業을 한다. 그리고 그 직장에서 願하는 技能工이 되기 위해서 徒弟訓練(Apprenticeship training)을 받게 된다.

이 徒弟制度란 우리나라의 工業化過程에서는 制度的으로 別반經驗하지 못한것이지만 西歐 工業國家에서는 中世紀부터 始作하여 近代産業革命의 重要한 功績을 담당해왔음을 알아 두어야겠다. 例를 들면 高校를 卒業한 사람이 建築회사에 일단은 취업을 해서 일하면서 週末이나 夜間으로 每週 二, 三, 四씩 職業學校(큰 會社에서는 그 會社內에 訓練所를 두는경우가 많음)에 나가서 특수분야의 技能을 習得한다. 따라서 實際作業場에서 하는 일과 訓練所에서 배우는 일 사이에 별로 거리가 없는 特徵技能을 練磨하는데 徒弟制度의 特性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점이 다소 理論의 一般性을 內包하고 있는 實業學校와 다르다.

이같은 徒弟訓練은 보통 3~4年 要하지만 원래 이것은 本職業을 가지고 있으면서 訓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修練生에게 큰 부담이 없이 技術을 習得시킬 수 있다는 長點이 있다. 이 같은 修練期間동안은 그 職種熟練工賃金の 約 6分의 1程度의 賃金を 받는다. 3~4年이란 所要期間이 人爲的으로 만들어진 必要以上の 長期間이라는 點을 들어 合理的인 修正을 要求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하튼 高度의 熟練된 技能을 要하는 職種에서는 徒弟訓練을 받지않고는 技能工이 될 수가 없다.

(3) 第三의 方法은 아무런 技能도 배우지 않고 그냥 高等學校卒業後 어느 技術을 要하지 않은 서비스 職種에 從事하는 것인데 물론 賃金은 最下級이고 이 階級の 職種은 大部分 外國에서 홀터 들어온 勤勞者들이 就業한다. 그러나 高等學校를 卒業했다고 大學에 進學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짐나제」로 간사람에 비해 좀더 긴 時間이 要할 따름이다.

工業高等學校(Technical High School)이라는 3年制學校가 있어서 이를 卒業하면 「엔지니어」(Engineer)란 資格을 주거나 이 는 엄밀히 말해서 高等學校라기 보다는 工業專門學校 或은 工業初級大學이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 入學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인데 그 첫째는 「짐나제」를 卒業한 學生이 大學으로 進學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으로 進學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적어도 1年以上 實務에 經驗을 쌓은 뒤에라야 入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짐나제」에서 배운것은 大學進學을 위한 準備作業으로서의 理論的인것 뿐이었으므로 高等學校 出身 職業訓練받은 사람보다 實務經驗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한 實際經驗을 重要視하는 「스위스」教育 制度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둘째는 高等學校를 거쳐 就業해있으면서 徒弟訓練을 받은後 技能工이된 사람으로서 工業專門學校에로 進學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實務에 充分한 經驗이 있기 때문에 3年間 訓練만 마치면 「엔지니어」의 資格을 얻게된다.

第4次 5個年計劃을 위해서 막대한 數의 技能工을 輩出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스위스」의 事例는 매우 敎訓的인 것이다. 첫째 지난 날 우리들의 人力政策은 高等人力에 集中되어 있으므로 中間階層의 熟練된 技能工 技術工의 養成을 게을리 해왔다. 科學技術의 土着化가 最高位頭腦의 確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相應하는 中間技術의 開發이 뒤따라 주어야 그 實效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教育制度와 職業訓練은 두개의 獨立된 制度로 볼 것이 아니라 產業社會의 人的資源에 대한 投資라는 次元에서 綜合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명심할것은 一見 歐州先進國의 教育制度가 어릴때 장래를 결정해버리는 융통성이 없는 制度인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짐나제」로 갔던 사람이 工業專門學校에로 또 高等學校에서 能力과 適性을 發見하면 다시 「짐나제」로 혹은 職業訓練을 받은 후 工業專門學校로 進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사실이다. 再修, 參修를 해가면서라도 꼭 한길로만 가야 出世를 할 수 있는 劃一的制度는 하루 속히 고쳐 나가야겠다. 職業的 閉鎖社會는 非民主的일 뿐아니라 非能率的임을 알아야겠다.

有備無患精神으로 民防衛隊列에 앞장서서
모든 事態에 處理해 나갑시다.